

News

금융당국 "연말 배당' 줄여라"...은행권 "주주 설득이 관건"

아시아경제

금융당국이 연말 금융지주사의 배당 시즌을 앞두고 결산 배당 축소 작업에 나서... 은행권이 예년보다 배당을 줄여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주요 금융지주들이 올해 3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갈아치운 상황에서 주주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무리한 서울시금고 유치... 신한은행에 기관경고 중징계

이데일리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처분을 받아... 서울시금고 유치 과정에서 이사회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내부 절차상 문제... 신한은행은 결과적으로 서울시금고를 따냈지만, 실익은 크지 않았을 것이란 게 은행권의 평가...

9억이하 주택도 주담대 조여

매일경제

DSR을 전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금융사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의미... 금융사의 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동시에 보유 예금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을 예전 수준으로 돌릴 계획...

네이버 공습에...시중은행 신용평가모델 싹 뜯어고친다

데일리안

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 판매 데이터를 활용해 온라인 사업자 신용대출에 뛰어들자 시중은행들도 신용평가모델을 뜯어 고치며 경쟁력 제고에 나서... 고객 데이터를 추가 수집해 대출심사를 집행하면서 은행의 핵심영역인 대출시장에서 역량을 대폭 강화...

생보 1·2위, 나란히 금감원 '철퇴'...1년간 신사업 못한다

한국경제

생보업계 2위 한화생명에게 이어 1위 업체인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삼성생명이 징계를 받으면 삼성카드에도 불뚝...삼성카드는 1년 동안 금융위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올해 실손보험 발생손해액 7245억 증가

파이낸셜뉴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 울 3·4분기 누계 발생손해액이 전년 대비 7245억원 증가... 실손보험으로 인한 손실액도 전년 대비 1400억원 가량 증가... 일부 소수의 과다 의료이용으로 의료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거나 꼭 필요한 의료이용을 한 대다수의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도...

라임 판매은행 제재심·증권사 제재 의결 출몰이 내년으로

연합뉴스

'라임 사모펀드'의 판매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제재가 모두 해를 넘기게 돼... 애초 계획했던 금융기관 종합검사 일정도 일부 내년으로 밀려... "절차상 열흘 전 대상 기관에 통보하기 때문에 9일에 증선위 논의가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16일 금융위에서 논의하기는 어렵다"

주식 대여 활성화 최대 난관은 '개미의 불신'

뉴스토마토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를 활성화 방안으로 일본식 공매도 방식을 검토...투자자들의 근본적인 공매도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증권사들도 리테일 영역 커지는 만큼 신용대주 시장도 활성화되길 바란다" "개인의 수요가 미미하다보니 사실상 유명무실한 서비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